



도시의 시간
박솔미 지음

목적없이 방황하는 청춘

광주 출신 박솔미 작가의 장편 '도시의 시간'은 네 명의 청춘이 목적과 의지 없이 공유하고 교차하며 흘러보내는 한때의 시간을 그린다.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로 출간된 작품은 조해진의 '아무도 보지 못한 숲'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소설이다. 2009년 '자음과 모음'으로 등단한 이후 특유의 독특한 스타일 작품을 선보인 작가는 이번에는 클라이막스 없이 전개의 연속만으로 소설을 형성화한다.

작품을 읽는 내내 독자들은 공통의 사건, 혹은 문제라 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단순히 끝없이 반복되는 도시 위에서 흘러가는 청춘의 시간만을 담담하게 그려낸 뿐이다. 이번 작품에서도 박 작가의 매력적인 문체, 사회문제에 대한 예민한 의식은 감각적 사유와 맞물려 독특한 빛을 발한다. <민음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경영은 사람이다
이병남 지음

이윤 말고 공익에 투자하라

"이윤의 역설(paradox of profit)이란 말이 있다. 이윤만 쫓다 보면 이윤은 자꾸 도망가는데, 원래의 사업 본질에 충실하면 오히려 이윤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LG인화원 이병남 원장이 펴낸 '경영은 사람이다'에는 20년 이상 전경경영인으로, 사업현장에서 터득한 경영에 대한 철학이 녹아 있다. 저자는 '시장' '기업' '인간'의 세 영역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새로운 경영의 비전을 제시한다. 그는 기업의 존재 목적을 다시 정의하고 그 본래의 의미에 충실할 때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저자에 따르면 기업은 단순히 이윤만을 좇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 고객과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존재다. 기업은 보다 높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은 수익이나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넘어서는 것이다. <김영사·1만4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친밀감·열정·헌신...사랑은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레오 보만스 엮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감스럽게도 서로 다른 의미였던 경우가 종종 있다. 시간과 돈, 무엇보다 감정적 지원을 관계에 투자한 뒤에야 비로소 서로의 사랑이 다른 의미였음을 알고 후회한다. 사람들이 '사랑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두 사람의 사랑이 성공할지는 대부분 두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같은 의미인지에 달려 있다."(본문 중에서)

어떤 감정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사랑은 어떻게 사랑에 빠질까? 영원한 사랑이 가능할까?

사랑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본질적 주제다. 인류의 역사가 사랑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랑은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받는 단어다. 오스카 와일드의 사랑에 관한 '명언'



학자들은 어린시절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남자들은 언제나 여자의 첫사랑이 되길 원한다. 여기에 그들의 어질픈 자만심이 있다. 반면 여자들은 좀 더 확실한 본능을 갖고 있다. 여자들이 바라는 것은 한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 되는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가 각기 다르다는 뜻이다. 사랑을 바라보는 남녀의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그뿐인가, 사랑은 지역과 종교,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변적이지만 사랑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주제도 드물다.

세계 100명의 전문가들이 1000개의 단어로 사랑을 정의한 책이 나왔다. 벨기에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레오 보만스가 펴낸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은 사랑을 쉽고 간결하게 풀이한 책이다. 여기에는

저명한 심리학자, 경제학자, 인류학자, 철학자, 역사학자를 비롯, 심리치료사, 부부관계상담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 도나텔라 마지지티 교수는 사랑에 빠지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설명한다. 낭만적 사랑은 전형적인 인간의 감정이며, 그 기저에는 강박장애 환자와 유사한 생화학적 이상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즉 코르티솔이라는 수치가 증가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지만 누군가에게 애착을 느끼는 감정은 결과적으로 유익하다고 말한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J. 스탠버그는 사랑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같은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그는 사랑의 세 요소를 '사랑의 삼각형'으로 정의한다. 친밀감, 열정, 헌신이 그것인데 세 요소를 더 많이 경험하고, 이들 간의 균형이 상대와



연애 감정은 기본적으로 성적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다.

비슷할수록 행복하다고 강조한다. 중국 홍콩대학 예밀은 만문 교수는 사랑이 저절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조언한다. 사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실질적인 목표와 계획, 이를 실행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랑을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한 이도 있다. 독일 경제학자 하노 벡 교수는 사랑에서 손의 비교를 배제하는 것은 조금의 행동이라고 본다. 최고의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감정과 견해가 유사하면 타협할 필요가 적고 갈등도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렇듯 책에는 사랑에 관련한 보편적 지혜가 담겨 있다. 여기에는 '질투'에 관한 부분도 있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그레고리 화이트는 질투도 사랑만큼 보편

적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살인 사건의 4분의 1이 질투와 관련 있고 가정 폭력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병적 질투나 반응적 질투가 아닌 경우는 모두 정상이다. 커플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예외가 아니란다. 상호 관계에서 신뢰와 의사소통 기반만 마련돼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두 사람의 유대가 종교·전통·관습 등에 의해 외부로부터 보장되고 강요되었다면, 오늘날에는 내부에서 온다. 그리고 사랑은 항상 감정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사랑은 결단이기도 하다. 각 개인이 자신을 위해 내려야 하는 결단. 이것이 새로운 사랑의 철학이다." <흐름출판·2만1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작가 조정래의 문학론·인생관·사회의식...



조정래의 시선
조정래 지음

"인생이란 자기 스스로를 말로 삼아 끝없이 채찍질을 가하며 달리는 노정이고, 두 개의 돌덩이를 바퀴 놓아가며 거니는 징검다리다."

작가 조정래가 정의한 인생이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정글만리'의 작가답게, 그가 펴낸 '조정래의 시선'에는 깊은 성찰과 사유, 그리고 작가의 예

리한 시각이 담겨 있다. 사실 조정래라는 이름은 하나의 대명사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이름을 풀이하면 '우리나라 근현대 비극을 예리하게 그려낸 작가'로 정의된다.

책에는 "문학과 우리 역사 그리고 사회적인 긴급한 문제에 한해" 발언한다는 원칙을 문학인생 45년간 지켜온 그의 인터뷰와 강연, 칼럼 등이 수록돼 있다. 여기에는 소설에서 직접 말하지 않은 문학론, 인생관, 민족의식, 사회의식이 담겨 있어 작품 이면에 드러워진 작가의 또 다른 목소리를 가늠할 수 있다.

작가가 '정글만리'를 쓰게 된 동기부터 한국과 중국의 관계와 상호 협력해야 할 미래에 대한 통찰과 전망이 이르기까지

그의 관점이 드러나 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나름의 역사를 개척해온 민중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도 담겨 있다.

작가는 현시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비정규직 개선을 꼽는다. 또한 그의 민족의식과 사회 인식은 약소국 국민으로서 공생적, 개방적 민족주의의 지향과도 맞닿아 있다.

소설에 대한 입장이도 명료하고 엄격하다. 타인의 영혼을 혼드는 것이므로 하루 16시간 이상 집중해야 된다는 작가의 책무에 이르러 모든 글쟁이들이 새겨야 할 금언으로 다가온다. "천재는 1% 영감과 99%의 노력"이라는 격언에 가장 부합한 이가 바로 조정래다. <해남·1만35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해남 윤씨 가문 3대의 예술세계



공재 윤두서 일가의 회화
차미애 지음

내년은 공재 윤두서 서거 3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윤두서 서거 300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리고 방송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공재의 예술을 조명하고 있다.

석·박사 학위 논문을 비롯해 지난 15년간 공재 관련 연구를 지속해 온 차미애 박사가 최근 '공재 윤두서 일가의 회

화'를 펴냈다. 윤두서 회화를 개별적으로 파악한 선행 연구들과 논점을 달리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남윤문 삼대가를 계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윤두서의 회화 및 윤두서 일가 회화에 대한 특성을 동시에 규명한 책이다.

윤두서의 예술적 재능은 아들인 낙서 윤덕희와 손자인 청고 윤용으로 전승돼 해남윤씨는 3대에 걸쳐 문인회화의 일문(一門)을 형성했다. 저자는 이들의 예술가로서의 삶의 족적, 예술을 펼쳤던 생활 공간, 그들이 선호했던 지적 관심사 등을 당시 가문이 처한 시대상황과 접목시켜 연대기적으로 복원한다.

<사회평론아카데미·4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가족모임

세미나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주) 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062)525-4835 062)941-3278

기차여행

후원 KORAIL 한국관광공사

시간	일	정
11:5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06:27	가평역 도착 후 출발	
07:00	남이섬/김유정 문학촌/춘천 소양강댐/춘천 명동 먹거리 자유관광	
16:18	춘천역 출발	
22:14	광주역 도착	
성인 85,000원~	소아 80,000원~	

시간	일	정
22:0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06:53	정동진역 도착 후 출발	
07:00	정동진일출/청국동굴/추암해대배위/목호항어시장 자유관광	
15:30	동해역 출발	
22:00	광주송정역 도착	
성인/청소년 115,000원~	소아 83,000원~	

시간	일	정
21:0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23:24	서대전역 도착 후 출발	
04:30	낙산사일출/휴휴임/주문진어시장/정동진 관광	
18:56	서대전역 출발	
22:00	광주역 도착	
성인/청소년 95,000원~	경노 93,000원~	

시간	일	정
21:1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23:32	서대전역 도착 후 출발	
04:30	낙산사일출/휴휴임/주문진어시장/정동진 관광	
19:25	서대전역 출발	
21:09	광주송정역 도착	
성인/청소년 95,000원~	경노 93,000원~	

요일	시간	일	정
(목)	05:00	광주 집결지 집결 후 출발	
1/8	09:30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출발	
1/15	10:40	한국전망대/미우다하리/원통사/에보시타계 전망대/와타즈미 신사 관광 후 호텔로 이동	
1/29	10:40	이완음매곡비/수선사/역해음주결혼 불축비/조선통신사비/고려문	
(금)	18:00	대마도 이즈하라항 출발	
	18:10	부산 도착 후 광주로 출발	
광주출발조건 20명이상 / 1인 249,000원			
부산출발조건 2명이상 / 1인 199,000원			